

1945년 8.15광복, 건국의 이정표를 제시한 장로교회 목회자들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교회사)

I. 서론

1945년 8월 19일, 감격의 8.15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조선신학교 교장 김재준 목사가 새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장로교회 목사 한경직 역시 1946년 이래로 새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을 설교(영락교회)를 통해 자주 밝혔다. 그의 설교는 미군정 시기 남한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건국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재준의 강연원고는 “基督敎(기독교)의 建國理念(건국이념)”(1945)이다. 또 한경직의 설교집은 『건국과 기독교』(1949)이다.

II. 1945년 8.15광복, 김재준이 제시한 “기독교의 건국이념”

1. 사회정치적 상황

8.15 광복, 곧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었다. 이날 아침 7시에 일제의 정무총감 엔도오가 여운형을 비롯한 몇몇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일제의 항복이 임박했다면서 “4.5일 뒤에 붉은 군대(소련군)가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일제의 군대는) 무장해제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⁶⁾ 이 자리에서 엔도오는 임박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상하면서 여운형에게 치안유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여운형은 그러나 치안을 위한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이날 오후에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발족했다. 이것은 치안유지 차원의 조직을 넘어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거족적인 단체를 구상한 것이었다.

8월 18일경, 안재홍이 전국 각 지역의 대표 135명을 ‘국민대표’로 구성하여서 위원장 여운형에게 제출했다. 건준은 “지주와 민족 브루쵸아(뽕조아)를 제외(배제)한 진보적 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연합전선”이었다.⁷⁾

2. 김재준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는 건국

8월 19일에 조선신학교 교장 김재준이 선린형제단의 집회에서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개혁교회(장로교회)의 신학자로서 새 나라 건설에 대한 꿈(비전)을 제시했다.

1)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운형이 건준을 발족하여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재준은 건국의 최고 이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來世)를 의미하는 천당이 아니라 “하

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 생활에 강림하여 성령의 감화가 생활의 전(全)부문을 지배할 때 임한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인간에게 국한(局限)되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임하며 또 전 우주적으로 임한다. 따라서 세계 인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기적”(有機的)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룬다.

이와 함께 김재준의 건국이념은 인간이해로부터 시작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의 권세에 얽매어 있는데, 인류에 속한 일제가 조선(한국)에게 “정복의 칼을 휘두름으로써”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악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일제는 조선인을 전방의 도구로 쓰고자 강제 징용했다.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일제가 방금 패전하였는데, 이것은 인류가 “죄인”임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고, 또 일제는 스스로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제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이에 근거하여 새 나라 건설이 시작된다는 점을 암시했다.

김재준에게 건국이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현케 하는 “관현”을 세우실 것으로 확신했다. 그 관현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로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가 만일 이 청지기 의식을 망각한다면, 그는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의로 인민을 압제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독선행위를 감행하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민의 총의(總意)가 동등한 비중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의를 다 모아도(합쳐도) 지고(至高)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나라를 건설할 관현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열어 주신 그 길을 밝히고 지킴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새 나라 건설의 순서와 범주

김재준은 이제부터 건설될 새 나라의 형성에 구체적인 순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를 구성해야 하고, 이어서 그 위원회가 민주정치를 위한 헌법을 기초한 다음 광범위한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결의하고 결정해서 헌법기관인 입법부를 세우고, 그 다음은 헌법에 따라 정부의 최고 책임자(대통령?)를 국민의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 국민이 선출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내각을 조각(組閣)하고, 그러면 정부가 완전히 수립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여정은 한국의 역사상 처음이고 그런 까닭에 지극히 생소한 일이며 게다가 민도(民度)가 높지 않은 현실인데, 이 길을 이제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했기에 한발 두발 조심조심 걸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3) 국토의 소유자는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는 “목민자(牧民者)”

김재준은 개혁교회 신학자로서 국토가 “하나님의 동산이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식했다. 이 국토의 개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관현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목민자(牧民者)”여야 한다. 그는 여민동락(興民同樂)의 사회를 조성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바, 일부 특권 계급이나 소수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재준이 구상한 건국의 우선순위는 국토의 도시부터 개발계획을 잘 수립하되 도로, 상가, 공장, 주택, 관공서, 그리고 학교 등의 배치도를 그리는 것이었다. 전국 국토의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순수한 자연 그대로 잘 보존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석탄, 철강

6) 전현수 편역, 『쉬팍코프일기』1946-1948(국사편찬위원회, 2004), 179-188; 재인용. 이정식, 『여운형』(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496.

7) 『조선해방1년사』(문우인쇄판, 1946), 82.

등)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 개발하여 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국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토개발을 해외 자본에게 맡기지 말고 또 외국인에게 국토의 소유도 허락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재준은 건국을 위해 당장 실시할 정책을 제시했다:

(1) 그는 교육정책의 수립이 최우선 순위라고 보았다. 교육이 민도(民度)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교원 확보 역시 시급하다고 보았다. 민도의 향상을 위하여 교회도 또한 “공민강좌”를 개설하도록 권했다. 교육의 대지(大旨)는 ‘하나님 경외와 사람 사랑 그리고 자기 성찰’인데, 하나님의 뜻(계시의 빛)으로 파악한 조선(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가르쳐서 장차 전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 식민지배시대의 국가주의 교육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때의 학교 교실이란 “국민을 빚어내는 공장”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몰각한 채 인간이 국가 봉공(奉公)의 부품으로 양산되는 교육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육은 인간교육에 우선해야 하며, 일제강점기의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주입시키는 교육은 앞으로 절대로 되살아나지 말아야 한다.

(2) 그는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서 여민동락(興民同樂)의 사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선진국들의 사회정책을 참고하여서 조선(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3) 그는 국제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 침략을 받지도 말고 침략하지도 않는 나라를 지향하는 국제정책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막강해야 하고, 국력이 군사력을 뒷받침 해야 하며, 국제 외교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4) 그는 기독교(종교) 정책에서 국가교회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이 성별하신 “신직기관”(神的機關)이라 파악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지 말 것이며, 교회 또한 정치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치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5) 그는 재정정책에서 정부가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을 충분히 보장하되 특정한 소수에게 부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의 정의로운 분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세금할당이 정의로써 실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부자에게 할당되는 누진세, 대재벌의 세습방지, 대지주와 공상주가 소작인과 노동자의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통신·전매·광산사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민간 자본의 도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조선 왕실 소유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 그는 건군(建軍)정책에서 일제식민지배시대의 군대를 기반으로 창군(創軍)할 것을 제안했다.⁸⁾ 즉, 일본군에서 고급장교로 지내던 한국인을 중심으로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또 일제에 징병되었던 청년들이 또 다시 하사관으로 편성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제국에 멸사봉공(滅私奉公)하던 군대가 아니고 조선(한국)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군대에서 전투 훈련과 함께 생활교육 및 직업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군 영내에 기계화 농장, 직조공장, 피복공장 등을 운영하여 군비 절약과 제대 이후의 직업 교육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8) 1945년 8.15광복 직후에 일제 식민지배시대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 여론이 분출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재준의 제안은 파격적이다.

(7) 그는 문화정책에서 한국 문화-아시아 문화- 유럽·북미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음식, 언어, 음악 등 각 분야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한국 안으로 흡수하고, 전 세계에 통하는 한국 문화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는 상호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양자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도덕의 소중함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해방정국에서 김재준은 새 나라 건설에 필요한 7개 분야의 정책을 날लाई 제시하였다.

4) 친일 전력자 “대사면”(大赦免),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일치단결

8.15광복 직후에 수많은 정치결사단체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치밀고 나타나자, 김재준은 새 나라의 건설을 위한 대동단결을 강조했다. 이제부터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념들이 서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한 그는 수많은 결사단체들이 서로서로 상호 진중한 자세로 대하며 정치적 손익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분열을 피하고 다 함께 새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새 나라의 건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건설은 지나온 과거의 청산과 미래의 청사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었다. 이에 김재준은 먼저 친일부역자 청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⁹⁾ “일제강점기에 친일했던 사람도 그 내면에는 조선 사람에 대한 의식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선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기쁨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이에) 건국의 기쁨을 조선 사람 모두 다 다함께 누릴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 망국의 환경에서 (...) 나라 없는 백성이면서도 나라 있는 백성같이(처럼) 살아보려고 (친일했는데) 그것이 그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하여 지금 와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문책함은 대인답지 못하다. 대사면(大赦免)이 필요하다 (...) 부모가 가난하여 그 딸이 어떤 자에게 팔려가 창기로 지낸다고 그 딸만 죽일 년이라고 문책하는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이처럼 김재준은 친일협력자의 청산이 아니라 대사면을 제안했다.

이렇게 대사면의 바탕 위에서 국민 모두가 -죄용서 받은 친일 전력자까지도- 참여하는 건국은 인민(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김재준이 주장했다. 국가 정체(政體)의 결정, 헌법 제정, 정부 수반자의 선정 방법 등이 민의(民意)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언론, 집회, 사상, 출판 등)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 국민 전체와 국민 개인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대로- 인민이 주인(민주)이 되는 정부, 인민의 정부, 인민을 위한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끝으로 김재준은 다시 한 번 국민 각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생명의 신성이 보장되는 여민동락의 사회 건설을 희망했다.

그런데 해방정국에서 당장 풀어가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김재준이 보기에, 현실 공산주의와 현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였다. 만일 공산주의를 사회과학 분야로 인식한다면, 이 사상은 현실 경제상황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더 좋은 사회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적 근거인 무신론적 유물론은 기독교 신앙의 견지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무신론적 유물론에 대한 거부감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한 김재준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공산당 전체주의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고 또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도 침해했던 경험을 가졌다. 그래서 김재

9)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 17.

준은 공산주의자에게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몰이해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침범하여 신성한 성역을 훼손하고 교인을 해했다.”고 회고했다.¹⁰⁾ 그리고 또한, 현재의 이기주의적 자본주의는 “자본을 만능의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기계화하고 노예로 부린다.”고 비판했다.¹¹⁾ 또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약탈과 전쟁으로 시장을 독점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데”,¹²⁾ 이러한 자본주의는 기독교 윤리와 대립한다고 보았다.

III. 1945-47년 미군정 시기 한경직의 “건국과 기독교”

1. 사회정치적 상황

건준이 발족된 지 3일 후(8월 18일)부터 건준은 아직도 서울에 주둔 중인 일본제국 군부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 군부가 치안을 맡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이에 건준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8월 20일에 ‘조선공산당’은, 김재준이 제시한 대등단결에 대립하는, 계급노선을 발표했다. 이 노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살인 강도적 침략 전쟁을 지지한” 지주와 민족부르조아 계급을 신랄하게 공격했다.¹³⁾ 조선공산당은 계급노선에 집착했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전근대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라 배척했다.¹⁴⁾

그런데 9월 6일에 박헌영의 계열(최용달, 이강국, 박문규 등)은 건준 측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민공화국’(인공)이 조직되었다. 인공의 조직선포와 더불어 건준은 막을 내렸다. 인공은 조선(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면서 조직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곧 미군이 조선(한국)에 상륙하게 되면 건준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박헌영 계열은 국호(國號)인 인민공화국(인공)을 조직하여서 국가로 인정받고자 했다.¹⁵⁾

9월 8일 미군 24사단이 점령군으로서 서울에 진주했다. 하지 중장을 수반으로 한 미군정은 - 인공의 기대와 달리- 인공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인공 조직이야말로 한국 전역을 지배하려는 소련의 종합기본계획의 일환이라 간주했다.¹⁶⁾ 이때의 조선(한국)에서는 당장의 자주 독립과 일제 잔재의 청산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서 보수주의자들과(김성수, 김연수, 송진우, 조병옥, 윤보선, 장택상 등) 접촉했다. 미군정은 친일파로 비난받는 인사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일제식민지배 시대에 활동했던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¹⁷⁾ 따라서 일제식민지배시대에 독립운동

10)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 6-7.

11)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 7.

12)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 7.

13) 이정식, 『여운형』, 519.

14) 이정식, 『여운형』, 520-521.

15) 이란의 “구술증언”: 이정식, 『여운형』, 753.

16) 브루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269.

17) 이 입장이 1945년 9월 2일 발표된 연합군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에서 드러났다: 1. 미국 소련 그리고 중국만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접수할 권한을 갖는다. 2.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일본의 항복을 받는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중국과 조선에서 진행된 한국의 독립운동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8.15직후 조직된 건준 등 자치조직들은 일제로부터 어떠한 행정적 사법적 권리도 이양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일반명령 제1호는 미군정이 설치된 이후 좌익의 인민공화국과 우익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81.5에서 5.18까지』 (창작과비평사, 2006), 41.

을 활발히 펼쳤지만 일제를 향해 총 한 방 쏘아본 적이 없는 인공에겐 일제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의 정치적 장래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특히 미국과 소련)의 노선과 결정에 달려있었다.

미군정은 좌익세력을 약화시키고 우익세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9월 16일 미군정의 후원으로 ‘한국민주당’(한민당)이 발기되었다. 이 정당의 기반은 조선(한국)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극소수의 지주들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친일 전력을 갖고 있었고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었다.

미군정은 10월 16일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귀국하게 했다. 미군정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설립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익세력의 강화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기대가 실망감으로 되돌아왔다. 이승만은 대중의 지지도가 높은 좌익세력을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로 대했고, 또 그는 친일파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외면을 당하였다. 그러자 미군정은 중국에 있는 김구에게 눈을 돌렸고 11월 23일에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 등 14명(제1진)을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게 했다.¹⁸⁾ 미군정은 ‘조선국민집행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중심에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앉히고 보수세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¹⁹⁾

1945년 12월 27일 한국의 신탁통치(5년)를 결정한 모스크바삼상회의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났다. 국민에겐 신탁통치란 독립의 시점이 미루어진다는 뜻이고, 또 조선(한국) 민족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신탁통치가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국제연합이 남아프리카 등지의 미개한 토인들에게 실시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김구가 앞장서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불을 지폈고, 12월 30일 총파업이 선포되면서 공무원들이 파업했고 상인들이 파시했다. 이 운동이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이 우익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김구는 이 기회에 임시정부 세력 중심의 우익세력을 규합하고자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몹시 당황했다. 미군정이 지원하는 국내 우익세력이 미국의 정책인 신탁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좌익 세력은 1946년 1월 3일 신탁통치 반대집회로 모였다가 갑자기 지지로 돌변한 이후부터 신탁통치지지 세력이 되었다.

남한의 정치지형은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가 명확하게 나뉘었다. 1946년 1월 14일 공고에 따르면, 다음달 ‘미(국)소(련)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다. 그러자 좌파와 우파가 각각 조직화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권한을 미국·소련 양국의 점령사령관으로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에게 이양했다. 3월 20일에 개최된 위원회는 소련 측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을 참정권에서 배제시키자고 주장했다. 5월 9일 소련 측 대표 쉬프코프 대장 일행이 서울을 떠났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미국은 조선(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²⁰⁾

미군정은 기존의 우익 세력 이외에 새로운 우익의 조직이 필요했다. 이에 이제까지 중도파로 평가받던 김규식과 여운형이 부각되었다. 미군정은 김규식을 우익 세력의 대표로 선정하고 또 여운형을 좌익 세력의 대표로 선정하여서 양측의 합작을 도모하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

18) 인공의 여운형이 10월 17일 이승만을 찾아가서 주석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고, 11월 23일 귀국한 김구 일행 또한 여운형을 냉담하게 대했다. 이정식, 『여운형』, 557, 559.

19) 박태균, 『우방과 제국』, 49.

20) 빅테균, 『우방과 제국』, 56.

다.²¹⁾ 그런데 여타 우익 세력들과 좌익 세력들은 각기 자기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좌우합작 위원회가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우익 세력의 한민당과 좌익 세력의 조선공산당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미군정은 여운형 세력을 배제하고서 '과도입법위원'을 조직했다. 전체 위원이 90명인데, 절반(45명)을 관선으로 지명하고 나머지 절반(45명)을 민선으로 선출했다. 관선위원에는 김규식의 추천으로 중도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민선위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는데 이승만과 한민당을 지지하는 각 지역의 우익 인사들이 당선되었다.

미군정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모스크바상상 협상인 신탁통치를 폐기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분단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2. 한경직이 제시한 민주주의 국가건설

장로교회 목사 한경직은 1946년 이래로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 그는 1945년 10월에 북한 신의주에서 남한 서울로 내려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12월 2일 그는 스무 명 남짓의 교인들과 베다니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영락교회를 창립했다. 그 당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던 남한에서 한경직은 설교를 통해 건국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경직은 당시 사회의 무질서와 정치적 혼란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8.15광복을 맞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겠는지 그 가능성을 시험받는 시험대라고 보았다. 즉, 일제 식민 지배시대에는 강압에 따라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해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자유민이 되고 보니 새로운 시험을 만나게 되어 법을 존중치 아니하며 경찰을 무시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민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²²⁾ 해방이후 오히려 사회정치적 불안과 혼돈 가운데서 커다란 시련기를 맞이했다고 보았다.

1) 황폐한 세상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영락교회 창립 1주년(1946년 12월 1일) 예배의 설교제목이었다. 한경직은 질문의 해답을 애급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낸 40년 세월에서 찾았다. 광야는 거칠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황폐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나산이 있었고, 그 산 기슭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그들을 해방시킨 야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의 초석이 되는 율법을 배웠다. 이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그들이 건립할 나라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던 것이다. 한경직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포착했다.

구약성경 출애급의 역사를 8.15해방정국에 비추어 본 한경직은 1946년 연말의 조선(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 1년 이상 지났으나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생활에 비유되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이 거친 광야처럼 황폐했다. 우리 국민이 현실에 낙담하여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기 아주 쉬운 상황이었다.

21) 좌우합작위원회가 열린던 시기에 1946년 '9월총파업', '10월 대구사건', 그리고 남로당이 결성되었다. 남로당 결성과정에서 여운형과 박헌영이 심각하게 다투었고, 여운형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조선인민당을 근로인민당으로 개편하며 박헌영에 맞섰으나, 좌우합작을 추진한 그는 더 이상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22)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서울: 기문사, 1949), 51.

그러나 애급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한 광야의 시나산 기슭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지금의 조선(한국)에서 "교회는 영적인 시나산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배워 새 나라의 국민이 될 정신적, 도덕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포했다.²³⁾ 그래서 "교회는 건국의 정신적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폐한 세상에서 교회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한 정신적 기초이며 또 무질서한 사회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대중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2) 교회는 새 나라 건설의 정신적 기초

한경직은 "기독교와 정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가 새 나라 건설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선포했다.²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파악해보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여 국가교회체제를 가졌던 콘스탄틴 황제이후의 로마제국 교회와 근세 독일 개신교를 기억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정교분리의 체제를 가진 미국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에서 들어왔기에 정교분리의 교회체제가 형성되었는데, 그렇지만 교인은 교회의 신자인 동시에 국가의 국민이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속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직은 교회의 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원리는 인간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를 수 있기에, 인간의 악행을 벌하고 방지하기 위해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롬 13:1),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의 법칙은 '공의'이다. 인간에게 마치 공기처럼 필요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공의를 위해 하나님이 권력의 칼을 주셨다. 그 칼을 쥔 정치가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을 처벌해야 한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공의로 실행되는 것이 기독교의 정치 이상이다.

그런데, 한경직이 판단하기에 현실 사회에서 대다수 권력자의 칼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며... 안면과 지위와 뇌물로 허가를 내주고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 만일 권세 얻은 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무책임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쥐어 주신 칼을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유물론 공산주의에 맞서는 기독교 사회주의

한경직은 1946년 현재 조선(한국)의 최대 과제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수립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은 그가 일제의 식민지배 시대에 경험한 뼈저린 소원이었다. 그는 정치적 자유가 없이는 그 어떤 자유도, 심지어는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경험했다.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사실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에 굴복한 한국 장로교회를 회고하게 했다.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는 반드시 기독교의 정치 이상에 근거하여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경직의 소신이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의 정치 이상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나라의 형태는 "유물론 독재국가"라고 보았고,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국가형태라고 보았다.

23)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78-79.

24) 이 설교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 잠언 14장 34절, 마태복음 22장 21절이다.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140-150.

그는 그 당시 남한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빚어내는 내홍(內訌)을 목도하였고 또 그 자신도 고통을 겪었다. 이 점을 그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²⁵⁾ “우리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으로 지금은 각 방면이 혼돈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 근본 이유는 사상이 혼돈해진 까닭이다.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민주주의나 독재주의나, 기독교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건설이나 파괴나 문명이나 야만이나 이러한 사상적 기로에서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일반 대중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어느 노선이 우리가 취할 진실한 노선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은 철저한 사상 교회 운동에 나서야 한다.”

한경직은 1946년과 1947년에 적어도 4회 이상 강단에서 좌익사상의 무신론적 유물론을 비판했다.²⁶⁾ 그는 좌익사상이 노동자 농민의 계급해방을 표방하면서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맥면 그대로라면 “기독교 신앙과 모순될 것이 없었더라도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했다. 그의 견해는 김재준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좌익사상의 정통파인 (현실) 공산주의”가 이 주장을 펼치면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기독교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파악했다. 즉, 노동자 대중의 해방은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 “다른 계급들을 박멸”시키려 하고 마지막에는 “무산자의 승리를 통한 무산자 독재”를 추구하고 있다.²⁷⁾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정치 이상인 인간의 “인권”이 무시되고 “자유”가 짓밟히게 된다. 또한 한경직은 공산주의자들이 계급해방을 앞세우며 민족을 무시하는 “반민족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직은 8.15광복직후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유물론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타고 빵을 준다는 짓발을 들고 굶주린 대중을 삼키고... 사회 정의와 무산자(계급) 해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인간의 최대 본능인 물욕에 호소하여 인간을 동물로 환원케 하며 하나님도 모르는 유물론적 견지에서... 방축 약탈 등을 일삼고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자로 이는 소련을 통해 들어온다.”²⁸⁾ 그 유물론은, 한경직이 보기에, 물(物)과 심(心)의 분간을 무시하고 마음과 정신의 현상까지도 물질이라 하기에, 인간에겐 영혼이 없고 우주에는 신이 없고 오직 자연법칙만 있고 인간 역사도 오직 물질과의 관계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유물론은 인간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주의 근원인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부인하며, 물질의 근원인 생명을 무시하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한다. 유물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 이상의 것에 대한 상상력을 상실케 한 결과로서 종교 도덕 예술의 가치조차 몰이해 하게 한다. 유물론 공산주의가 설파하는 종교란 자본주의의 결과로 생겨난 생활고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그 생활고를 잊기 위한 아편과 같아서 노동자로 하여금 고단한 현실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러한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생활고가 없어진다면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하여 한경직은 반박했다. 첫째로 종교가 생활고로 인하여 생겨나는 주장은 “거짓말”이고, 둘째로 인간의 생활고가 경제 상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역시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을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불어넣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맘식식 계급투쟁에 중독된 사회운동가들이야 말로 민족의 반역자”라고 공격한 그는 8.15광복

25)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148-149.
 26) 예를 들어 한경직의 설교집 『건국과 기독교』에서 “청교도의 신앙(고후 6:14-7:1)”(60쪽 이하), “신앙과 의심(요 20: 24-29)”(85쪽 이하), “사상전의 초점(마 10: 38, 롬 8: 5-6)”(262쪽 이하), “기독교와 공산주의(마 4:1-11)”(198쪽 이하) 등이다.
 27)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86쪽.
 28)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60-61.

직후에 좌익 세력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표방하는 계급투쟁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결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투쟁과 피의 속청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만의 하나 그들이 표방하는 혁명이 성사된다고 할 지라도 “천사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지도자(독재자)가 나타날까?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요구에 따라 나누어 주는’ 독재자가 나타날까?”²⁹⁾ 이렇게 한경직은 인민공화국과 그 노선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직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유물론 공산주의의 맹점을 지적했다. 즉,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먹고만 사는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의 소유자이므로 육신만 살리기 위하여 영적 생활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 개조와 계급투쟁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단순히 먹고만 사는 동물이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실수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등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 모든 사회제도 속에 있는 결함과 단점을 비판하고 투쟁해 왔다. 이것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사회제도를 초월해 있다는 점을 뜻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제도의 모순과 불완전을 지적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사명을 실천했다. 현재 공산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경제적 평등과 남녀평등, 무상 복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계급타파는 본래 인류의 이상이였다. 이 이상이 결코 공산주의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정신은, 한경직에 따르면, 인간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자유를 함께 강조해왔다. 이것이 유물론 공산주의에 맞서는 “기독교 사회주의 혹은 사회 민주주의”의 원리이다.³⁰⁾ 기독교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혁명노선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개선과 사회적 발전을 지향한다.

그런데, 한경직은 유신론적 세속주의 또한 간략하지만 강하게 비판했다:³¹⁾ “속세주의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것과 타협하려고 하여 이 세속 생활과 같은 오락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또 예수도 믿어 구원을 얻으려 한다.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투전도 하고 극장에도 가고 이혼도 하고 주말 날에 오락도 하고 자유 연애도 하는 등 그야말로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를 믿자 하는 자들인바 이는 소위 기독교 국가라 하는 미국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다.”

4) 새 나라의 건설은 “민주주의 국가”로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주의 또는 사회 민주주의를 제시한 한경직은 조선(한국)에서 건설될 새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는 기독교여야 하며, 이 민주주의는 공산당 독재주의와 전체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한경직은 1947년 12월에 영락교회 창립2주년 기념설교에서 선포했다.³²⁾ 한경직이 본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존중, 그러한 인간 개인의 자유, 만인의 평등이라고 보았다. 그 연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신앙정신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고 주장했다.

29) 위의 책.
 30)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86.
 31)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61.
 32) 설교제목은 “건국과 기독교(시 118: 22, 벰전 2:7)”였다.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193-197.

한경직은 이러한 민주주의 훈련을 장로교회의 교회/노회/총회가 그동안 잘 실천했다고 자부했다. 예컨대, 지 교회에서 집사 장로를 선거하는 것, 목사를 청빙하는 것, 노회 정치 등은 민주주의 훈련의 현상이었다. 또 지금까지(1947년 현재까지) 조선(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교회만이 민주주의 정치를 훈련했다. 때문에 “경찰서 열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는 김구의 주장에 한경직이 동의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인 기독교를 떠나서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국민 개인의 인성양육과 사회 도덕적 교육이 결핍되면 그 실행이 불가능 한데, 기독교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한경직이 보기에 민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리하고 청산해야 할 점이 있는데, “1) 재래도덕 관습의 해이 2) 일제 강점기 및 전쟁 심리의 폐해 3)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생활고 4) 자유의 관념 오해 및 남용.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은)수단을 가리지 않는 관념(자유방임과 방종)- 이중인격(거짓말), 다른 계급 모조리 숙청(강탈 강도), 무자비한 투쟁(테러, 살인, 방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말, 도둑질, 테러”가 현재 사회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죄악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 나라의 건설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IV. 정리 : 김재준과 한경직이 제시한 건국의 이정표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1945년 8.15광복이후 김재준과 한경직은 각각 건국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재준은 광복 4일째인 1945년 8월 19일 기독교청년단체 ‘선린형제단’의 모임에서 이것을 발표했고, 한경직은 미군정 시기인 1946-47년에 영락교회에서 설교로 이것을 선포했다.³³⁾ 두 사람의 발표시기가 각각 다르고 또 발표장소와 청중이 다른데도 건국에 대한 이정표의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김재준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국의 이상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에 청지기(“관현”)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으로 소망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김재준의 입장에서, 여민동락의 목민자라야 한다. 목민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하되 그 공권력의 법칙은 공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런데 한경직에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는 교회가 건국의 정신적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직과 김재준의 건국이념에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속에서 공의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의 후손인 인간에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정부 및 관현)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저지른 인간을 처벌하는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의를 집행하는 공권력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악행에 벌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에,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청지기)는 인간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건국의 이상은 16세기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이며 개혁교회 제1세대인 츠빙글리(U. Zwingli)의 사회윤리와 거의 동일하다. 당시 취리히의 교회와 사회를 개혁한 츠빙글리 역시 그러한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실천했다.³⁴⁾ 그런데 츠빙글리는

33) 김재준과 한경직은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다. 1930년대에 두 사람은 아방돈성경주석 번역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또 두 사람은 1945년 12월 첫 주일 서울에서 각각 교회를 개척했다.
34) 참고: 임희국, “츠빙글리의 사회윤리, 아투어 리히의 시장경제론”, 『공감, 교회역사 공부』, (장로회신

취리히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개혁을 추진했고, 김재준과 한경직은 미국식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교나 강연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³⁵⁾ 특히 한경직은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나산에서 국가건설을 준비하며 훈련받았던 점을 거울로 삼아서, 8.15광복을 맞이했으니 아직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교회가 건국의 정신적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강단에서 선포했다. 그 이후 1948년에, 김재준과 한경직이 제시한 대로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성사되었다. 김재준의 이정표대로 헌법 제정, 국회구성, 정부의 최고 책임자(대통령) 선출, 내각 구성의 순서로 건국이 성사되었다.

8.15광복 직후 남한 사회에서 강력하게 득세한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하여 김재준과 한경직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각각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격했다. 한경직은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는 노동자 농민의 계급투쟁과 폭력(강탈 살인 방화 테러)은 기독교의 정신인 인권과 자유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계급해방을 앞세우는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은 민족을 무시하는 “반민족자”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한경직과 김재준은 현실 공산주의와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구별했고, 평등(경제, 남녀, 복지 등)을 지향한 유토피아 공산주의는 인류가 꿈꾸어 왔던 이상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정신에도 낯설지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두 사람은 세계 냉전시대 현실 공산주의에 현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체제에서 드러난 문제점 역시 짚고도 분명하게 짚었다.

한경직은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기독교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이미 1945년 가을 북한 신의주에서 잠시 동안 기독교사회주의 정당을 경험했던 그에게 기독교 사회주의란 -하나님의 인간창조를 바탕으로- 인격체인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 개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이 그 핵심 원리이다. 또 개인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로 확대되고, 만민의 평등이 사회 정의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사회주의체제는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계급투쟁 혁명노선에 맞서서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1945년 8.15광복이후 미군정 시기에 다수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우익 세력으로서 현실 세속 정치에 참여하였다.³⁶⁾ 그런데 김재준과 한경직은 당파적이고 당리당략의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 세상 한가운데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본다. 한경직은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인격에 대한 존중, 개인의 자유와 만민의 평등으로 증언되어 공의로운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토의 주제

1. 이번 4월 27일에 남북한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핵화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발전해야 하며, 또 그 발전을 위하여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토의해 보십시오.

학대학교출판부, 2014), 513-547.

35)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제까지의 관찰을 정리하면, 츠빙글리는 국가(정부) 공권력과 함께 손을 잡고 직접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추진했고, 김재준과 한경직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서서 교회의 설교를 통해 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36) 이와 관련해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선출된 210(20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 개신교 교인이 50명 정도였다. 5월 31일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고, 또 국회 개회식에서 이윤영 목사가 개회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현실 정치에 깊숙이 참여한 개신교지도자들의 행적을 다음 기회에 역사적, 신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